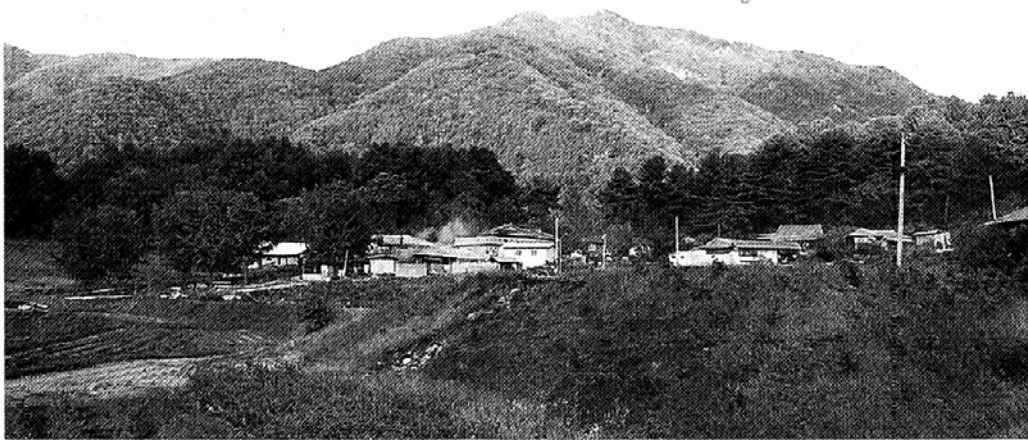


양평 명달리 주민 '생태 산촌 만들기' 개가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뽑혀



◇명달리 주민들은 개발보다는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이 마을을 살리는 길이라는 인식하에 '서종면 녹색산촌 추진위원회'를 결성, 생태산촌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옛 어른들은 물 한 바가지라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었다. 뜨거운 물일 때는 꼭 식혀서 버렸다. 미물이라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몸에 베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관습이다. 이런 아름다운 우리 생활문화의 전통을 고스란히 되살리려는 노력이 온 마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서울에서 한 시간 반 거리의 수도권 지역이지만 자연환경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원시상태다. 중미산 소유 계곡의 산길에는 잣나무 숲이 울창하고 길을 따라 흐르는 시냇물은 사철 마르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곳을 속속 떠나기 시작했다. 명달

"공원 유지보다 환경보호마을 만들자"

폐교 명달분교를 '환경교육센터'로

"조건 비슷 강원도 양구로 확산 계획"

분교가 폐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남아 있는 주민들 사이에는 삶의 터전에 대한 절박함이 일기 시작했다. 공여지책으로 명달리 주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태권도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나섰다. 그러나 '생태산촌만들기모임(회장 양병이)'의 김성일(서울대 산림자원학과) 교수를 비

롯한 생태학자들은 명달리의 자연환경에 주목하고 군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공원 유지보다 잘 보존된 환경을 이용해 마을을 활성화시켜볼 것"을 권유했다. 친환경적인 주민자립형 생태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2000년 여름 명달리의 '생태산촌만들기'는 이렇게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자연을 보존해야만 마을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김성일 교수와 김재현(건국대 산림환경과) 교수 등 환경전문가들의 설득과 거듭된 마을회의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2001년에는 마을 주민들이 '서종면 녹색산촌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생태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게 됐다. 이제 주민들은 마을 산의 산림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체험학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폐교된 명달분교를 '산촌환경교육센터'로 꾸리는 문제까지도 마을 회의에서 이야기한다.

이런 노력 덕분에 명달리는 지난달 9일 환경부가 지정한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풍부한 인산자원과 원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주민 스스로 장수하늘소와 독수리 등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결성해 환경보호 운동을 전개하는 뜻을 높이 산 것이다.

지금 명달리에선 마을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개발을 주민회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과 마을 부녀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사업, 마을에 오수정화시설을 틀어는 문제까지도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휴농산물 생산과 산촌체험 프로그램 등의 수익사업도 준비 중이다. 생태산촌만들기 모임은 주민들의 힘으로 일군 이 생태마을을 법인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명달리에서 진행되는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2004년. 기본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현 교수는 "명달리 녹색마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강원도 양구 등 자연조건이 비슷한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nia.com

신행담

제7회 신행수기 당선작

천태종 총무원장상

부처님이 안겨 준 행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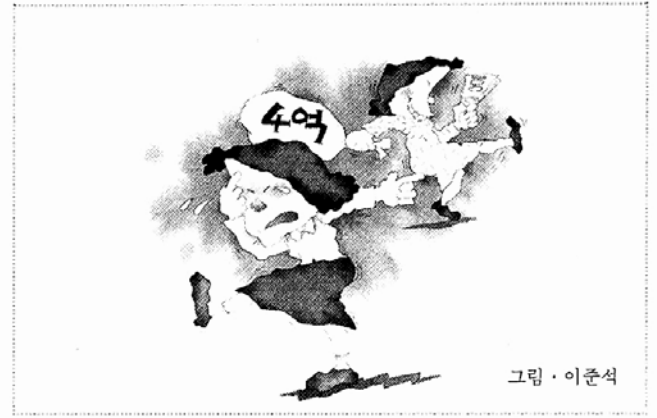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한달 하안거 후 건강 크게 호전

문학의 길 걷게... 여생 부처님 품에

구인사에서 도착하여 4박 5일간의 기도 접수를 마쳤다. 그리고는 대법당과 적멸보궁과 삼보상에 인사를 올린 후 4층 기도실에서 수행에 들었다. 그곳은 약 천여 명이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는 방이었다. 나도 많은 사람들 틈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을 되뇌었다.

그렇게 며칠동안 기도를 하다보니 차츰 머리 아픈 것이 줄어들었다. 나는 마음 다잡고 밤에는 기도에 열중하고 낮에는 발일을 하며 설거지에도 재미를 붙였다. 그러니 마음도 몸도 한결 가벼워졌다. 4박 5일의 기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무엇인가 콧속이 가늘어졌을 수 있었다. 구인사를 떠날 때는 여러 신도님들과 함께 행복감에 젖었으며 그로부터 내 마음은 불심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옥돌부처님을 모시는 일에 동참한 후 한 달간의 하안거도 말 안길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달간의 동안거를 마치기 사흘 전, 기도를 하던 새벽 2시경쯤 나의 코에서 한알 남새와 속 냄새가 진하게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날이 밝자 내 몸이 한결 가벼워지며 훨씬 날아갈 것 같았다. 기분이 좋아지니 마비되는 증상이 없어졌음은 물론이고, 침침하던 눈도 또 멀어진 것도 확 풀리는 것을 확연히 느꼈다. 참으로 놀라웠다. 나는 새삼 관세음보살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부처님은 나의 고민과 고통을 없애주시고, 내가 지혜를 원할 때 지혜를 안겨 주셨다. 어디 그뿐인가? 부처님은 내게 크나큰 선물을 안겨주셨다. 내게 대롱사 법전을 안겨주셨고, 마침내 점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다. 그리고 부처님은 내 주변에 얽히고설켜 복잡했던 금전거래 소송에서 10여명의 거짓 증언을 물리치고 승소하게 해주셨으며,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매듭짓게 해주셨다.

부처님은 또 나에게 문학의 길을 환하게 열어주셨다. 월간 한백문학의 신인문학상에 당선되고, 그에 힘입어 시집 '마흔 네 살의 산하'를 출간할 수 있었던 것도 짚어보면 다 부처님의 은덕임을 새삼 깨닫는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이제 나는 오직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는다. 나를 위해 기도하면 그분을 위한 기도가 되었으며, 그 어떤 원을 세워 기도를 하면 원하는 답이 얻어지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 역시 좋은 결과를 낳았다.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절실히 느꼈다.

나는 새로운 일을 계획한다. 이제는 무슨 일이든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무리는 무리를 잉태하고 또 실패할 확률도 높다. 모든 행동을 절제하며 살아갈 것이다.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안정된 생활과 종교생활을 하게 된 이 행복을 오래오래 감사 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나를 담은 분들에게 포고하며 살아갈 것이다. (끝)

김숙희(경남 진해시 용원동)

부처님은 나의 고민과 고통을 없애주

"꼭 일본사죄 받고 말겠다"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11년간 절규

13일 오전,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손길이 바빠졌다. 김순덕(82) 할머니는 평소 애용하던 한복을 꺼내 곁에 차려입었고, 강일출(75) 할머니는 연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할머니들이 찾아갈 곳은 500회 수요집회가 열리는 일본대사관 앞.

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첫 시위를 한 이후 11년간 세월이 흐른 것이다. 95년 고베 대지진 때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단 한차례 선 것을 빼면 할머니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요시위를 거르지 않았다. 처음 시위를 시



◇13일 오후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500회 수요시위에서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죄와 법적 배상'과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헌법'을 요구했다.

현재 전국에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142명이다. 고령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의 소원은 '죽기 전에 일본 정부의 사과를 듣는 것'이다.

경찰이 진입로를 차단해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대식을 가진 할머니 지킴이' 대원들과 합류하는 것으로 시위가 끝나자 김은례(77) 할머니는 "죽는 날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의 일"이라며 발걸음을 돌렸다.

일대사관 앞 500회 수요집회

"옷차림 하나라도 단정하게 해야 우습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매주 수요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여온 수요집회가 13일 500회를 맞았다. 할머니들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명예대표 윤정숙, 이하 정대협)와 함께 92년 1월 8

작할 때 얼굴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던 할머니들은 이제 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밝힌다.

이날 집회에는 나눔의 집 할머니 다섯 명을 비롯해 김포와 대구에서 올라온 10명의 할머니들이 참가해 '일본 정부의 사

세상에! 이렇게 좋은 종무관리가 공짜 라니..!

상황 종무 관리 프로그램 무료 보급!

모바일통신료 20만원을 내시면 획기적인 종무관리가 됩니다.

상황모바일버전 이래서 좋다!

- ▶ 문자메세지 발송 - 한번에 수천명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 ▶ E-mail 발송 - 법문, 안내문 등 E-mail 발송 가능
- ▶ 음성·음악·벨소리 전송 - 모닝콜기부
- ▶ 기존 데이터 자동 변환
- ▶ 각종 인쇄를 글자크기 조절 가능
- ▶ 실시간 불교뉴스, 각종단게시판 열람
- ▶ 관리비 없이 자동 업그레이드
- ▶ 사찰과 신도 가정의 인터넷 네트워크 형성



상황 종무관리 설치 방법

- 전화주문 : 02)722-4162(현대불교신문사)
- ↓
- 통신료 20만원 선납금 납입 : 국민은행 006-01-0773-240(현대불교신문사)
- ↓
- 우편으로 CD받기
- ↓
- 안내문 따라 설치
- ↓
- 인증받기 02)365-5933(지우커뮤니케이션)
- ↓
- 기존의 D/B 자동 이전

타 종무관리 프로그램과의 비교

구분	상황종무관리	G	D	K
가격	무료	320만원	150만원	무료
관리비	무료	2만원/월	3만원/월	20만원/교육비
업그레이드	무료	유료	유료	
인터넷기능	불교뉴스, 정보 등	없음	없음	없음
문자메세지	30원/건당	가능없음	가능없음	가능없음